

## 건축박물관의 기능구성에 따른 유형별 특성에 관한 연구

조성용<sup>1\*</sup>

<sup>1</sup>광운대학교 건축학과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Architectural Museum Based on Functional Configuration

Sung-Yong Cho<sup>1\*</sup>

<sup>1</sup>Department of Architecture, Kwangwoon University

**요약** 건축은 한 나라의 문화적 역량과 자취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문화유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분야의 자료 및 정보들은 많은 부분 소멸되었거나 그럴 위험에 처해있고, 그나마 존재하는 자료들 역시 산재되어 관리되고 있는 열악한 형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재 한국의 건축도시 관련 박물관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해외 선진사례의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적 상황에 맞는 건축박물관의 모델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본 논문에서는 건축박물관의 유형별 특징요소를 도출하고자 한다.

그 결과 본 논문은 박물관의 공간 및 기능구성은 그것의 운영특성에 따라 상당히 좌우되며 이는 아카이브중심, 전시중심, 연구중심의 시설특성으로 반영됨을 밝혔다. 또한 이러한 유형별 특성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MAXXI, Nai 등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궁극적으로, 건축박물관의 공간프로그램은 변화 가능하고 미래의 수요에 적응가능한 단계별 프로세스로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사례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Abstract** Architecture is widely regarded as one of important fields representing their own culture. In most cities of our nation, there has been the tendencies of negligence in keeping its record properly to be used.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llect the basic informations and analyse them to develop the appropriate programs for us. This study aims to offer fundamental characteristics of functional configurations in architectural museum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korean and foreign museums.

In so doing, it deal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identity of museum policy and its spatial program such as archiving center, exhibition center and communication-research center. For the prove of such relationship this study attempt to compare multiple cases such as MAXXI, Nai etc. Finally this study propose that, in considering the establishment of a new architectural museum, the space program should be considered as a continuous changing process in order to make the museum as a cultural multi-complex.

**Key Words** : Architectural Museum, Functional Configuration, Space Program, Archive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건축은 한 나라의 문화적 역량과 자취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문화유산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문화유산들이 소실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문화적 연속성은 심하게 훼손당한 채 근대를 맞이하였다. 전후복구 과정에서 한국은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채택하였는데, 그 결과 도시로의 극심한 인구집중이 발생하였다. 대도시권 난개발을 막기 위하여 채택한 국가주도의 강력한 도시개발 체계는 도시건축분야의 학술적, 문화적 기반이 없이 대규모 개발계획을 급

본 논문은 2011년도 광운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Sung-Yong Cho

Tel: +82-2-940-5474 email: chosy@kw.ac.kr

접수일 12년 02월 13일

수정일 (1차 12년 03월 30일, 2차 12년 05월 02일)

게재확정일 12년 05월 10일

속히 시행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는 사회적, 문화적, 인간적 요소들이 간과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더구나 이러한 도시의 조성과정에 대한 기록이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여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대규모 개발경험을 가졌음에도 이 분야의 자생적 이론 형성이나 발전적 성찰 등이 이루어지지 못했다.[1]

건축도시 기록물은 한국건축도시의 성취와 한계를 파악할 수 있는 사료이며, 현황을 해석하고 발전방향을 설정하는 근거가 되고, 국내외를 대상으로 한국 건축도시의 정체성을 알리는 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분야의 자료 및 정보들은 많은 부분 소멸되었거나 그럴 위험에 처해있고, 그나마 존재하는 자료들 역시 산재되어 관리되고 있는 열악한 형편이다. 이에 더하여 현재 한국의 위상에 맞는 문화적인 건조 환경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의 한계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시건축분야의 학술적·문화적·대중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현재 한국의 건축도시 관련 박물관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해외 선진사례의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적 상황에 맞는 건축박물관의 모델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건축박물관의 분류 및 유형은 설립목적과 운영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 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 존재하는 각종 관련시설물의 현황 및 종류에 대하여 살펴본 후 그 문제점과 개선방향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 후 해외사례 분석을 통하여, 향후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건축박물관이 설립된다면 어떠한 방식과 유형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례조사 및 분석과정에서 시설 자체의 물리적 특성 보다는, 운영특성에 따라 건축박물관의 공간구성이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건축박물관의 정의 및 특수성

### 2.1 박물관과 건축박물관의 구분

ICOM(국제박물관협회)에서는 박물관의 정의를 8개의 주제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비영리 기관으로서 사회와 사회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사람과 그들의 환경에 관한 물적 증거의 연구와 교육 및 향유를 목

적으로 수집, 보전 연구, 커뮤니케이션 및 전시기능을 담당하는 대중에 개방된 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련법에 의하여 박물관을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대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 (...)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로 규정한다. 특히 국내 법령은 museum을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구분하고 미술관을 건축, 사진, 조각 등 특정영역에 특화된 관련시설로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법령에 따르면 박물관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관련된 포괄적 개념인 반면 건축박물관은 건축분야에 특화된 미술관으로서 정의된다.

이와 같이 박물관 혹은 미술관 등의 명칭은 그 성격상 매우 다양한 학문체제와 연계되어있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다른 표기를 하고 있어 명확한 정의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그 공공적 역할과 필요시설의 종류 및 기능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박물관을 종합 박물관과 전문박물관으로 분류하고 미술관, 과학관, 건축 박물관 등 일부 분야에 특화된 시설을 전문박물관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9]

### 2.2 건축박물관의 시설 특성

건축박물관은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능이나 시설의 측면에서 종합박물관과 일치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존, 전시, 연구, 교육 및 교류를 주요기능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만, 건축에 특화된 박물관으로서 갖는 특수성이 무엇인가와, 그러한 사실이 시설의 성격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하여 ICAM(국제건축박물관연합)에서는 건축박물관의 목적을 ‘건축적 환경의 질적 향상과 보호, 문서화된 자료에 관한 지식의 보존 및 보급, 건축역사 및 실무에 관한 정보의 교환, 전문가 및 기타 문화 관련자들 간의 접촉 및 교류 증대’ 등으로 정의하고 있어 보존기능 및 연구기능이 중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원인은 드로잉, 모형 등 보존 자료의 특수성에서 살펴볼 수 있다. 건축 및 도시 분야에서 최종 결과물은 그 자체로 박물관이라는 시설에 전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시 가능한 매체의 활용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작품 준비과정의 산물인 드로잉이나 모형 등이 건축분야에서는 그 자체로서 소장 및 전시자료로서 중요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건축분야의 특수성은 해외 유명 건축박물관의 성장 및 변화과정에서도 잘 나타난다. 예를 들면 유럽 건축박물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 출발이 어떤 개인의 컬렉션에서 비롯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의 소장품이 자료 보관소로 공식화되어 정부 혹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며 아카이브기능과 전시기능으로 성격이

분화되는 과정이 일반적이다.[7]

이상의 이유로 전시자료의 특수성과 아카이브의 중요성은 건축박물관의 시설특성을 분류하고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아카이브의 구축과 수장자료의 확보는 그 시설의 성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현재 국내 각종 전시시설이 단순한 홍보시설 이상의 역할을 기대하기 힘든 가장 큰 이유일 것인데, 이에 관하여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고자 한다.

### 3. 건축박물관의 기능별 유형분류

#### 3.1 국내 관련 전문시설 현황

한국박물관협회에 의하면 현재 국내에는 국립 23, 공립 113, 사립 328, 대학 107 곳 등 모두 571 곳의 각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박물관들 중 어느 곳이 건축 관련 기관인지에 대한 통계자료는 없으며, 그 구분 또한 애매한 경우가 많아 정확한 현황 파악은 쉽지 않다. 따라서 국내시설에 대한 현황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축관련 전문시설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박물관의 핵심 기능이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에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건축박물관이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수장, 전시, 연구 및 교육기능을 고루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본 논문의 조사에 의하면 거의 모든 시설이 부분적 기능만을 수행할 뿐 복합기능을 갖춘 시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1] 국내 도시건축 전문시설의 유형별 사례**  
**[Table 1] Korean cases**

전시시설	아카이브시설	홍보시설
서울역사박물관 토지박물관 주택도시박물관 고건축박물관	국가기록원 지역별 향토 사료관	서울시홍보관 청계천문화관 인천경제자유구역 홍보관 아시아문화중심도 시흥보관

국내의 도시건축분야 관련시설을 해당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핵심기능을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전시시설, 아카이브시설, 홍보시설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설들의 대표적 사례는 표 1과 같다.

위의 표에서 예시한 사례 이외에도 민간이나 기업 혹은 지역별로 운영하는 각종 관련시설이 존재하나 규모와

사료 면에서 전문시설로 보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전문시설 이외에도 국립현대미술관 등의 일부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도시건축 전시를 운영하고 있다. 또 국가종합아카이브에서는 도시건축 자료를 기록·보존하고 있다. 이외에 지역(향토)사료관에서 해당지역의 도시건축 관련 자료를 다루고 있으나, 이 역시 사료관의 수가 작고 규모가 매우 협소하다.

국내에서 설립 운영되고 있는 건축·도시 분야 전문시설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이 분야에 특화된 전문시설이 부재하여 관련 자료의 체계적 구축 및 접근성 제공, 지속적이고 전문성 있는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위의 사례에서 보는바와 같이 유사시설의 수는 상당수 존재하고 있으나 이들의 경우 대부분 규모가 작고, 주택, 토지, 고건축 등 특정분야에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기획전의 형태로 한시적으로 도시건축 전시를 운영하긴 하나 지속성이 없으며, 기록물의 보존·관리에 있어서도 건축분야에 특화된 아카이브가 없이 국가기록원에서 함께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상과 같이 상당수 존재하는 관련시설들의 운영을 지원할 네트워크 및 허브센터가 없어 시설활용도를 감소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도시건축분야 관련 자료의 체계적 정리 작업이 어려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한국 도시건축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방해하고 한국에 적합한 자생적 이론 생산 및 발전방향 설정에 큰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적 현실과 특수성에 적합한 건축박물관 운영모델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 3.2 해외 관련 전문시설 현황

해외의 주요 건축박물관 시설현황은 UIA에서 조사 발표하는 국제 건축박물관 목록을 참조할 수 있는데, 이곳에 등재된 기관만 해도 20개국 63개 기관에 달한다. UIA 조사자료 이외에도 국제박물관협회 및 건축센터네트워크에서도 관련시설현황을 조사 발표하고 있는데, 이들 기관에서 발표한 전문시설 현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해외 주요 건축박물관 등재현황**  
**[Table 2] Listed status of architectural museum, Oversea**

조사기관	등재국가	등재박물관
국제건축가협회(UIA)	20	63
국제건축박물관협회(ICAM)	13	21
건축센터네트워크(ACN)	13	21

그런데 위의 세 기관의 조사결과가 서로 다른 이유는 각 기관별로 중요하게 보는 기능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제건축박물관연합(ICAM)은 소장품의 종류 및 수량이 무엇인지를 주로 판단한다. 반면 건축센터네트워크(ACN)는 교류 및 연구, 교육기능을 중심으로 해당기관의 성격을 판단한다. 이러한 경향은 앞서 2장에서 살펴본 건축박물관의 정의와 연관 지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건축박물관의 정체성을 소장품 중심의 전통적 박물관의 측면에서 평가하는 입장과, 이보다는 연구 및 교류의 기능을 중시하는 경향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해외 건축박물관의 경우에도 교육, 전시, 연구, 교류 등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명실상부한 멀티컴플렉스로서의 건축박물관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그 중에서도 네덜란드 건축관(NAI, The Netherlands Architecture Institute), 이탈리아의 21세기 국립예술박물관(MAXXI - National Museum of 21st Century Arts), 프랑스의 건축·문화유적 박물관(la Cité de l'architecture et du Patrimoine) 등을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으며, 그밖에도 캐나다의 CCA, 독일의 DAM 등이 존재한다. 이들 시설에 관하여는 국내에서 다양한 학술논문을 통하여 연구된 바 있어 이를 참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복연구를 피하기 위하여 이들 전문기관들의 구체적 사례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한다.

상기 사례들은 대부분 복합적이며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기관의 방향성과 관계된 주요 목적 및 목표를 분류하면 크게 건축아카이브센터, 건축박물관, 도시전시관으로 구분된다.

이들 박물관들은 운영상 전시, 교육 및 교류, 수장, 연구는 핵심기능에 속한다. 따라서 중요도가 있는 건축박물관이라면 이들 기능을 어느 정도씩은 모두 수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주요 건축박물관들은 독자적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통적 운영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어느 특정기능에 더 중요도를 주는 경향이 관찰된다. 예를 들면 캐나다의 CCA는 수장 및 연구기능이 강화된 반면 이탈리아 MAXXI의 경우는 상설 및 기획전시기능이 중요시되고 있다.[5-6]

특히 이탈리아 MAXXI의 사례는 근현대 건축의 전시를 위해 새롭게 개관한 시설이라는 점, 그리고 수장자료 확보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 전시기능을 중시하지만 상설전시보다는 기획전시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아직 전문시설이 미비한 국내에 참고할 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MAXXI는 1999년 이후에야 정부지원예산이 투입되면서 아카이브자료의 구입이 가능해졌다. 1999년 이후 이렇게 구입된 아카이브는

Carlo Scarpa(31400점), Aldo Rossi(도면 1000점, 사진 및 도면 9박스, 영상물 50점, 작업수첩 13점, 모형 11점), Vittorio De Feo(도면 2917) 등이며, 기타 수많은 근현대 건축가들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수장시설의 공간이 적으며 주로 전시공간과 서비스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있는데,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공유공간은 향후 시설 성격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변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표 3] 유형별 특징 및 사례

[Table 3] Typological characteristics and its case

구분	건축 아카이브센터	건축박물관	도시전시관
설립분류	연구목적에 위해 원본 또는 디지털 사본의 참조와 관련해 가장 중심적 기능을 문서화 및 보존에 두고 있는 기관	주로 상설 컬렉션을 기초로 전시를 통한 건축문화의 촉진과 보급을 목표로 하는 기관	지역에 관계된 주제로 기획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관련 정보 및 논쟁의 장으로 기능. 대부분 컬렉션이 없는 반면 거주자들의 요구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현재의 문제를 다루며 공공을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 제공
주요기능	연구 및 수장	전시 및 수장	전시 및 홍보
사례	캐나다 건축센터(CCA)	네덜란드 건축관(NAI), 프랑스 건축·문화유적 박물관(La Cité de l'Architecture et du Patrimoine), 이탈리아 MAXXI	싱가포르 도시 갤러리(URA), 상하이 도시 계획 전시관(Shanghai Urban Planning Exhibition Center)

NAI의 경우 대중교류를 강조하는 운영정책은 19세기 중반 설립이후 줄곧 유지해온 특징이며, 현재에도 이러한 특징은 잘 유지되고 있다. 예를 들면 아카이브와 전시관 및 도서관의 복합적인 운영은 각기 일반대중과 건축 전공자를 위한 효율적인 프로그램의 조합을 이루며 수집·보관, 전시, 연구·출판으로 구성된 주요 기능과 연계되어 운영된다. 이와 더불어 전시와 결합된 아카이브는 공공전시를 위한 일차적 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형태의 출판사업과 연구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NAI의 주요 기능구성은 건축 아카이브, 도서관, 전시관, 연구시설, 출판사(NAI publisher), 건축문화교육 및 국제 포럼, 심포지엄, 홍보 등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기능별 시설별 면적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기능별 시설면적 비교표

[Table 4] Space programs

구분	NAI	MAXXI	la Cite'
수장시설	2,670m <sup>2</sup>	736m <sup>2</sup>	2,540m <sup>2</sup>
전시시설	2,010m <sup>2</sup>	3,244m <sup>2</sup>	9,000m <sup>2</sup>
연구시설	1,020m <sup>2</sup>	672m <sup>2</sup>	1,500m <sup>2</sup>
교육·교류시설	1,470m <sup>2</sup>	4,038m <sup>2</sup>	2,220m <sup>2</sup>
지원시설(홀, 카페)	710m <sup>2</sup>	1,261m <sup>2</sup>	2,700m <sup>2</sup>
운영관리시설	940m <sup>2</sup>	n.d.	1,870m <sup>2</sup>
연결 및 공유공간	4,525m <sup>2</sup>	13,865m <sup>2</sup>	2,830m <sup>2</sup>
시설면적총계	13,345 m <sup>2</sup>	23,861m <sup>2</sup>	22,660m <sup>2</sup>

프랑스 건축과 문화유적박물관은 3개의 부문(The Museum of French Monuments: MMF, The French Institute of Architecture: IFA, The Centre for Advanced Study in Chaillot: CEDHEC)으로 구성된다.[3] 프랑스의 경우는 모든 사례들 중 가장 적극적으로 건축분야의 자료보존, 전시 및 도서발간 작업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 판단되며, 그 성격 및 기능에 있어서도 아카이브기능, 전시 및 홍보기능, 교육기능 등이 각각의 분화된 시설로 전문화되어있다.

#### 4. 건축박물관의 유형에 따른 운영 및 기능적 특성

##### 4.1 설립 및 운영주체

앞서 살펴본 국내 건축 관련 전문기관의 문제점은 시설의 분산화 및 네트워크 부재로 인한 시설활용도의 현저한 감소현상이 지적되었다. 특히 보존자료의 수집 및 보존은 국가주도의 전문기관이 주도하지 않고는 건축박물관이 연구 및 교류의 중심점으로서의 기능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해외의 경우에 대부분의 도시건축박물관은 정부주도로 설립되고 운영되어지는 정부 산하 기관으로서, 하드웨어 이전에 아카이브 구축과 같은 소프트웨어에 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투자가 중요하며, 민간 기관과는 달리 건축설계 프로세스에 있어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와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현상설계 방식이 일반적으로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6] 한편, 정부주도로 설립되었으나 설립이후 민간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네덜란드의 사례와 같이, 창의적이고 유연한 운영을 위해 건축 및 도시분야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민간 재단으로 구성하여 독립적 운영을 하되 정부가 지원하는 형식 역시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

단된다.

##### 4.2 시설의 종류에 따른 운영특성

앞서 본 논문에서는 건축박물관의 주요 기능을 수집, 보존, 연구, 커뮤니케이션 및 전시로 정의한 바 있다. 또 이러한 기능은 실제 건축박물관의 시설 및 공간분류를 통하여 구현되며, 해당 박물관의 운영 특성은 시설공간의 면적배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건축박물관이 종합시설로서 기능하기 위하여 갖추어야할 기본적 시설의 종류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표시하면 표 5와 같다.

[표 5] 건축박물관의 프로그램 및 세부시설

[Table 5] Main programs of architectural museum

시설분류	프로그램	세부시설
전시시설	전시	중앙전시홀
		상설전시실
		특별전시실
		기획전시실
		멀티미디어
	전시지원	야외전시장
		준비실
		특수작업실
		물품창고
수장시설	수장고	일반수장고(도면, 모형)
		특별수장고
		임시수장고(전시비품 등)
	부속시설	복원실
		정리/작업실
연구시설	연구	수장연구실/학술연구실
		회의실/세미나실
	전시·출판 문헌·정보	사무실
		서고
		열람실(일반/수장자료)
		디지털자료실
		도서정리실
		오디토리움
		멀티미디어실
		강당/세미나
교육 및 교류시설	강좌·강연	워크숍 실
		스튜디오
		컴퓨터실
		미디어랩
		디지털자료
	실습교육	
지원활동		

한편 이러한 여러 가지 시설들은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능들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 관계를 맺어야 한다. 사실 박물관설계에 있어서 각 시설 간 연관관계의 설정은 공간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결과적으로 그 건축박물관의 특성으로 나타

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사례조사 대상 박물관들의 공간구성체계 분석을 바탕으로 건축박물관의 기능별 연결관계를 표 6과 같이 도식화하여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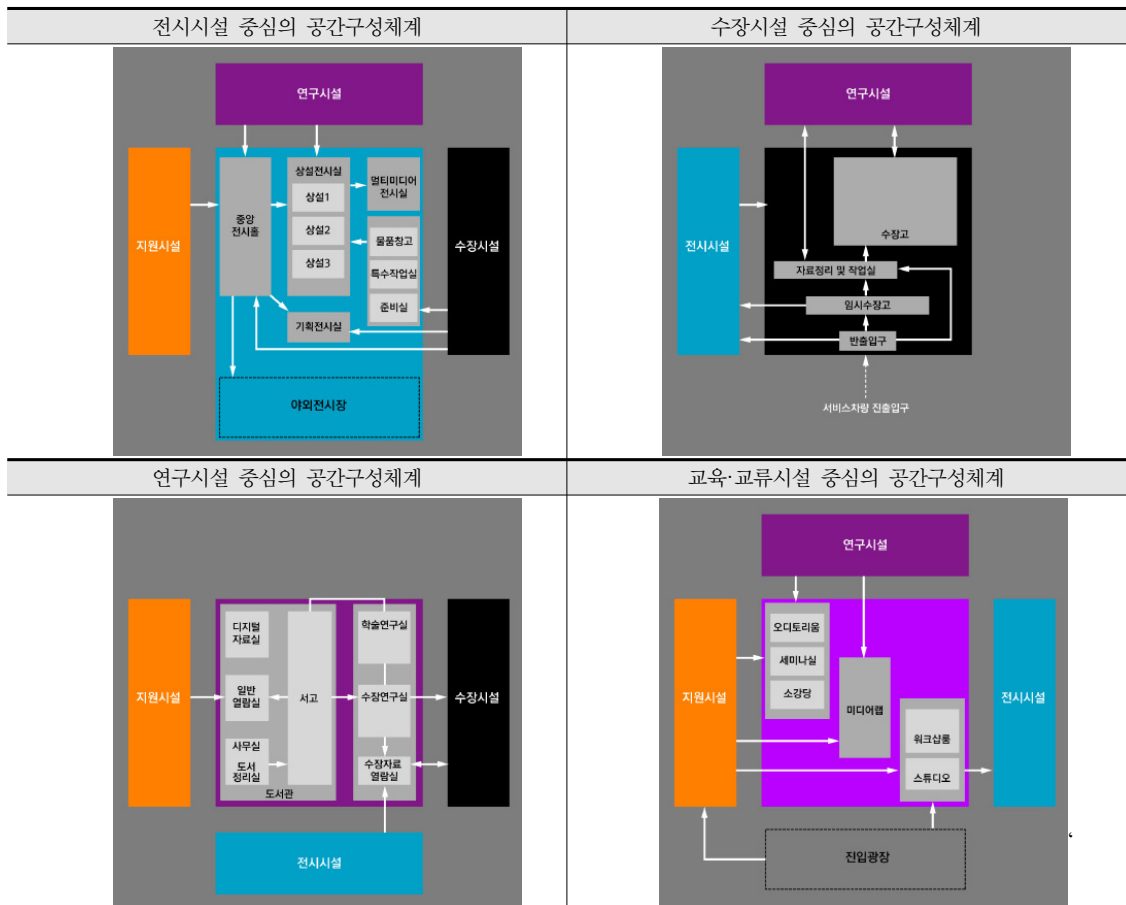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규모와 운영에 있어서 대표적인 도시건축박물관들은, 기본적으로 수장, 전시, 교류 및 연구, 교육 기능 등이 복합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으며, 건축 및 도시 투어나 시상제도, 출판 등을 통한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한 교류 기능 및 부속기관이나 다른 기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어느 특정기능이나 시설이 다른 박물관에 비해 잘 운영되고 있거나 특징적인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 예를 들면 이들 프로그램 가운데 특히 수장 방식 및 수장품의 실용적 운영에 관해서는 네덜란드 건축관이, 연구센터의 운영방식과 연구지원시설에 관해서는 캐나다 건축센터와 프랑스 건축·문화유적 박물관이, 다양한 형식의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에 관해

서는 글래스고우의 라이트하우스(The Lighthouse)가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 4.3 시설 특성에 따른 규모의 변화

분석사례들의 건축박물관 시설규모를 항목별로 분석해보면, 물리적 규모와 공간구성체계는 해당 기관의 목적에 따라 그 구성방식 및 규모가 상이하게 변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박물관의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서 전시공간 혹은 수장공간 등의 단위기능별 규모산출을 시도하는 것은 자칫 추상적 계량화에 머무를 수 있다. 이보다는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건축박물관이 어떠한 성격에 지향하는가에 따라 그 공간비율을 따져보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8] 예를 들면 다음의 세 박물관 사례는 기능과 시설특성이 규모에 반영된 전형적인 예라 판단된다.

[표 6] 주요기능의 구성 및 연결체계  
[Table 6] Configurations of main program



- 홍보 및 근·현대자료의 기획 전시 위주로 점진적으로 컬렉션과 아카이브를 구축을 주요 기능으로 설정한다면, 근·현대 건축 및 도시를 대상으로 홍보, 기획 전시 및 자료의 네트워크 기반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탈리아의 MAXXI가 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기획전시 등을 통해 일정 규모 수집된 컬렉션 및 아카이브를 바탕으로 상설전시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센터 기능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일반 대중의 건축 및 도시문화에의 접근성과 지식 창출을 강조하고 있는 프랑스 건축 및 문화유적 박물관이 적합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컬렉션 및 아카이브 구축에 집중하고 전문가들 및 일반 대중 사이의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네덜란드 건축관이 대표적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7은 위의 세 가지 사례에서 언급한 박물관들이 그들의 특성에 따라 시설별 공간구성을 어떻게 배분하고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다.

[표 7] 박물관의 특성에 따른 기능별 시설면적 활용도  
 [Table 7] Variation of occupation ratio according to the museum type

	이탈리아 MAXXI	프랑스건축 및도시유적박물관	네덜란드 NAI
연면적	23,861m <sup>2</sup>	22,660m <sup>2</sup>	13,345m <sup>2</sup>
지원(홀/카페)	5.3%	11.9%	5.3%
운영관리	n.d.	8.3%	7.0%
수장	3.1%	11.2%	20.0%
전시	13.6%	39.7%	15.1%
연구	2.8%	6.6%	7.6%
교육/교류	17%	9.8%	11.0%
연결/공유	58.2%	12.5%	33.9%

## 5. 결론

이상으로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사례조사 및 분석을 기초로 건축박물관의 시설내용 및 공간구성의 유형 및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 현재 국내에 존재하는 각종 관련시설은 수장, 전시, 연구, 교육 등 박물관의 기본기능을 모두 갖춘 복합문화시설이 아니라 부분적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어 시설활용도에 문제를 초래하고 있

음을 알았다. 그러므로 이들 시설들을 네트워크로서 연결해줄 허브시설이 시급히 필요하다.

해외의 경우 많은 관련시설 중 박물관의 기본기능을 모두 수행하면서도, 시설구성이나 운영에서 독자적 특징을 갖는 시설물 세 곳을 분석하여보았다. 그 결과 건축박물관의 프로그램 구성 및 배치는 그 박물관의 특성과 목표에 따라 상당히 가변적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자체 수장 유물이 풍부한 프랑스의 경우에는 진시시설이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수장 유물 확보가 진행 중이어서 기획전시 및 특별전시를 주요 목표로 하는 이탈리아의 경우는 전시공간으로 변용 가능한 공유공간면적이 60%에 달하는 독특한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구성 및 운영방식은 단시일 내에 아카이브 구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건축계에 시사하는바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설립 초기에는 기획전시 및 특별전시 위주의 공간구성에 유리한 형식, 이후 아카이브 구축이 진행 중일 때는 네덜란드의 경우와 같이 자료의 연구 및 분류에 유리한 형식, 최종단계에서는 유물의 체계적 전시에 초점을 둔 프랑스 형식 등과 같은 단계별 설립 및 운용계획이 유효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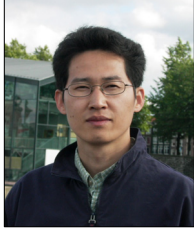
## References

- [1] AURI, A Study on Construction Plan of Urban-Architectural Museum in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in Korea, Consultation meeting paper
- [2]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of Korea, no.10010, 2010.2.4.
- [3] Yim Changbok, Kim donyun, Baik Kyungmoo, A Study on the Program Development for Architectural Archive and Gally, KIMA Journal no.12, p.7-8., 2004.
- [4] KAI, AURI, A Study on Construction Plan of Urban-Architectural Museum in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p.53, 2009.2
- [5] Choi Junhyuck,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Index for Exhibition Areas Six-computation of Museum, Journal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21, no.9, 2005.
- [6] Pio Valdi(편수), MAXXI-Natinal Museiin of 21st Century Arts, Electa, 2007.
- [7] Jeon Honghee, Woo Dongson, Lee Woojong, A Basic Study for the Foundation of Architectural Archives in Korea, Journal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20, no.3, 2004.3.

- [8] Kim Joungae, A Basic Study on Creation of Museum Complex, Museum Complex KIMA Journal n.8, 2002.
- [9] Choi Byungsik, The Birth of the New Museums, DongmunSun, 2010, p.32
- 

조 성 용(Sung-Yong Cho)

[정회원]



- 2000년 4월 : 로마대학교 건축대학 건축학과(건축학석사)
- 2004년 11월 : 로마대학교 건축대학 건축학과(건축학박사)
- 2005년 3월 ~ 현재 : 광운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관심분야>  
건축역사, 건축이론